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 성공 준비 가속도



군, 30일 군민의 날 선포식서 관광브랜드 본격화 100여개 세부 사업 발굴...“지역경제 활성화 준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광 브랜드 개발부터 군민 참여 확대, 관광콘텐츠 발굴까지 실행 기반을 마련해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30일 영암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영암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기점으로 관광 브랜드인 ‘충전氣 영암’을 대내외에 알리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초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방문의 해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영암의 관광자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0여개 세부 실행사업도 발굴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문의 해 대표 브랜드인 ‘충전氣 영암’

은 월출산의 자연과 역사·문화, 음식, 사암 등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기(氣)’로 표현하고, 영암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군은 브랜드를 관광홍보영상과 안내물, 관광상품, 전용 홈페이지 등에 일관되게 적용해 영암 관광의 이미지를 통합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는 개별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류형 여행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월출산과 왕인 관련 인물 콘텐츠, 구립 지역 관광자원, 상대포 아간 프로그램 등

을 철도관광·관광택시, 지역 먹거리와 체험, 숙박시설 등과 연계해 여행 동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차장과 화장실, 안내체계 등 관광객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과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단순한 방문객 수뿐 아니라 평균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 만족도, 재방문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6년을 기준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성과관리체

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연말까지 핵심사업과 관광콘텐츠 연계,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현장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암 방문의 해를 일회성 관광행사가 아닌 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관광객이 더 많이 보고, 더 오래 머물며, 다시 찾는 영암을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가을밤 도심 캠핑’ 17~18일 마술공연 등 다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선선한 가을밤 도심 속 캠핑의 낭만을 선사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강진읍 오감통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오감통 자율상권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다.

군이 주최하고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도심형 감성 캠핑 공간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감성 캠핑존과 직접 캠핑 요리를 만들어 맛볼 수 있는 캠핑조리존이 운영된다. 도심 속에서도 캠핑 특유의 여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녁 시간에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영화 상영이 이어진다. 17일 오후 5시에는 감미로운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18일 오후 5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공연이 진행된다. 시내마존에서는 이틀간 오후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상영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김동수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이사장은 “깊어가는 가을, 도심 속 오감통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캠핑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어르신들 삶 자체가 우리 지역의 자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지난 14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승호 영암군수와 이만진 영암군의회 의장, 시·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해남, 내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174억 확보

신규사업 5건 확정...하수관로 약 50.2km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2027년 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 5건과 계속사업 10건 등 총 15건을 추진,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해남군은 내년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국비 174억원을 포함해 총 2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실시하게 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화원 산촌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남 남천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송지 가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황산 옥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복일 용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이 확정됐다.

신규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총 300㎡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하수관로 약 50.2km가 정비되고, 1150여 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규사업에는 2027년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총 33억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군은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신안, 제26회 국제꽃장식대회 열린다

17~18일 압해읍 1004섬분재정원...국내외 53팀 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17일부터 이틀간 1004섬분재정원에서 ‘제26회 국제꽃장식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국내 47개팀, 국외 6개팀 등 총 53개팀이 참가해 꽃예술의 기량을 겨뤄 최고 영예인 국무총리상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꽃예술 분야의 명장인 방시 마에스터가 2001년 창설한 이래 대한민국 꽃예술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 해온 최고 권위의 행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잇따라 신안군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고품격 글로벌 축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대회인 만큼 예술 경연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했다. 주한 대사 부인들의 작품 특별전이 마련되며, 멕시코, 체코, 일본, 캐나다 주한 대사들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들 대사단은 압해, 자은, 도초 등 신안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1박 2

일 팸투어 일정을 수행한다.

김태성 신안군수와 함께 ‘글로벌 관광 교류’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리며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자연·예술·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고 수준 작품 경연을 통한 고품격 문화예술 정수 구현, 꽃예술 콘텐츠를 신안의 관광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발판 마련, 등 주한 대사단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K-신안’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대회인 만큼 예술 경연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했다. 주한 대사 부인들의 작품 특별전이 마련되며, 멕시코, 체코, 일본, 캐나다 주한 대사들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들 대사단은 압해, 자은, 도초 등 신안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1박 2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초대석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생산비조차 보전 어려운 농업 ‘구조적 한계’ 돌파해야”

초대석



안도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전남광주 대전환 기회 경제 대도약 열어나갈 터”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홍윤진 루트머지(주) 대표

“전통에 현대 더해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로”

시대공감



윤형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도시재생과장

“도시를 바꾸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노래 흐르는 거리, 꽃으로 물든 강변 남도의 가을이 깊어진다



당일치기 영암여행 문화유산이 있는 호남 대표 명촌에서 머물다

2026.10 vol. 161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인문도시를 넘어 AI 경제도시로 대전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래 다시 그린다

인구증가·인문도시·문화관광 등 성과 토대 민생 중심 행정...AI 헬스케어 미래 동력 육성 노포 맛집 발굴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박차